

## ■ ( 언론 동향 ) 2022.5.17. “한국농어민신문” 보도

### ○ 여야, 농업예산 삭감 정부 추경안에 ‘제동’...증액 주문

- 농해수위 의원 여야 막론 ‘역대최악 추경안’ 입모아
- 비료가격 정부가 지원 촉구

59조4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농업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국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위성곤)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이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했다.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 추경안이 말 그대로 ‘역대 최악’이라며 대대적인 수술을 주문했다.

세부사업과 관련해선,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한 국고부담 비율 축소가 도마에 올랐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비료 가격이 100% 가까이 급등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비 40%, 지방비 10%, 농협 30%를 분담해 비료가격 인상분을 보조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국비 분담이 10%로 줄고, 농협 분담이 60%로 증가했다”면서 “농협 분담이 60%로 올라가면 다른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지원해줄 예산이 줄어들게 된다. 이걸 정부가 잘못된 것이다. 기재부가 결정했다곤 하지만, 농식품부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항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김선교 의원도 “정부가 당초에 결정한 대로 농협 부담을 30%로 해도 큰 상관없는데, 괜히 농협 분담률을 60%까지 높여 정부가 농협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말을 듣고 있다”며 “정부가 분담률을 높여도 10%에 600억원 정도면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농협의 주인이 농민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농협에 부담시키지 말고,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하반기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급등했고, 우선적으로 농협이 2022년 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 판매하고, 그 보전비용은 국가·지자체·농협이 사후 협의해 분담하되 국가는 적정예산을 반영키로 했다”면서 “그런데 ‘적정예산’이라는 표현이 무색하게 이번 추경안에는 전체 소요 예산 6003억원 중에서 정부 분담률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2. 5. 18.(수)

은 10%인 600억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비 부담을 10% 정한 것은 당사자 간 협의로 적정예산을 반영하기로 한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생색만 낸 정부를 대신해 출혈을 감수하며 할인판매에 나선 농협에 대해서는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질타했다.

한편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 및 전체회의를 열고, 농식품부와 해수부, 농진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소관기관의 추경안을 심의하고, 6798억 2200만원을 증액·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2132억원이 감액될 예정이었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5556억400만원이 증액되면서, 전체 규모는 17조219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비료 가격 인상분 지원과 관련해선, 국고 부담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했다. 이번에 농해수위가 증액·의결한 소관분야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게 된다.

< 이기노 기자 >